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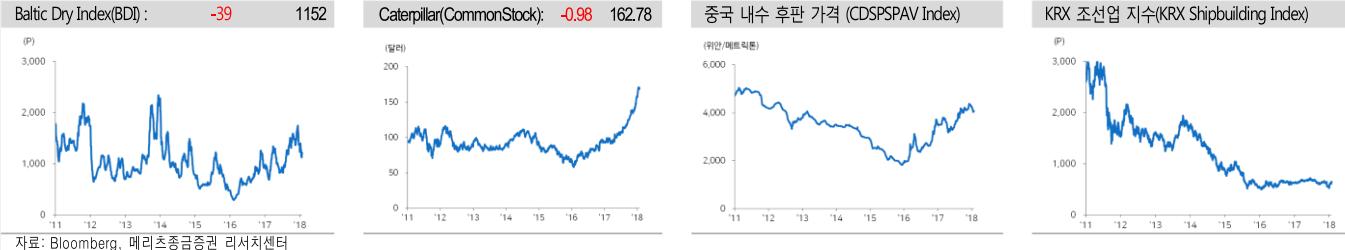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131.5	20.0	143,500	0.3	42.8	-4.3	42.8	100.0	47.9	0.7	0.7	0.7	1.4
현대로보티스	7,679.1	21.9	47,500	-3.4	23.8	8.1	23.8	64	53	0.8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1,275.7	7.9	125,000	-2.3	9.6	7.5	9.6	11.9	10.3	1.1	1.0	9.3	9.7
현대건설기계	2,014.8	10.0	204,000	-1.4	20.7	5.7	20.7	13.0	9.6	14	12	11.7	13.9
삼성중공업	3,685.5	19.8	9,450	-1.7	28.9	-19.6	28.9	59.6	29.6	0.6	0.6	1.0	1.9
대우조선해양	2,533.1	6.2	23,750	5.8	70.9	22.4	70.9	13.5	17.7	0.6	0.6	5.0	3.9
현대미포조선	2,260.0	13.6	113,000	1.8	43.6	11.9	43.6	24.4	17.6	0.9	0.8	3.6	4.8
한진중공업	402.5	6.4	3,795	-1.7	14.7	-0.5	14.7	76.3	19.0	0.6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544.5	36.3	62,700	-2.2	15.3	14.6	15.3	11.1	10.8	1.5	1.4	14.6	13.3
두산밥캣	3,704.2	27.4	36,950	0.1	3.2	0.1	3.2	13.5	12.8	1.0	1.0	7.4	7.6
현대로템	1,440.8	26.1	16,950	-0.9	-9.6	-10.8	-9.6	21.9	14.9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51.9	47.7	25,850	0.6	14.9	4.2	14.9	11.7	10.7	1.0	0.9	8.8	9.0
성광밴드	330.3	16.1	11,550	-4.9	15.7	17.8	15.7	1,021.0	41.4	0.7	0.7	0.1	1.8
태광	351.1	17.0	13,250	-4.3	10.0	3.24	10.0	79.1	38.6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783.3	9.9	16,750	-0.9	9.1	-6.4	9.1	11.6	9.1	0.6	0.5	4.6	5.9
두산인프라코어	2,319.2	12.8	11,150	-1.8	28.3	16.0	28.3	10.1	9.2	1.0	0.9	10.9	10.2
두산엔진	307.2	3.9	4,420	-1.2	19.9	7.2	19.9	61.2	39.5	0.6	0.5	0.9	1.4
한국항공우주산업	5,214.9	18.2	53,500	-3.1	12.8	-4.6	12.8	32.8	24.0	3.8	3.4	11.6	14.6
한화테크윈	1,785.8	16.0	33,950	-0.7	-4.5	-12.2	-4.5	19.4	14.6	0.7	0.7	3.8	4.9
LIG넥스원	1,284.8	11.3	58,400	0.5	-23	-22.0	-23	17.6	13.7	1.8	1.7	10.9	12.8
태웅	475.2	2.1	23,750	-3.1	22.7	33.1	22.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33.4	4.9	8,650	3.3	71.3	76.0	71.3	-360.4	51.2	2.5	2.5	-0.7	5.0
한국카본	314.8	16.5	7,160	-1.6	33.6	22.0	33.6	30.0	26.7	1.0	0.9	32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두산엔진, 대우조선에 선박엔진 공급...495억원**

두산엔진은 글로벌 2위 컨테이너선사 MSC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메가 컨테이너선 5척에 들어가는 선박용 엔진을 납품할 예정으로 공시함. 엔진은 총 51만 마력급으로 알려짐. 총 계약규모는 495억원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임. (연합뉴스)

Total sets sights on next target areas for LNG bunkering

오일메이저 Total은 LNG벙커링 시장이 25년까지 천만톤의 LNG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LNG벙커링은 벙커링 선박 가격과 터미널 비용을 감안하면 타 연료 대비 10배정도 비용이 높다고 알려짐. Total은 발주예정인 LNGBV를 동종 선박 여려 척의 발주를 통해 비용절감할 가능성도 드러냄. (TradeWinds)

U-Ming orders VLOCs for \$600m Vale contract

대만선사 U-Ming은 브라질 Vale와 25년간 장기운송계약(COA)을 6억달러에 체결했고, 32.5만DWT급 "mini-Valemax" 2척을 중국 Qingdao Beihai 조선소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선박은 20년 인도 예정이며, LNG-Ready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임. 동시에 SO2 규제에 대응해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임. (TradeWinds)

Cove Point produces first LNG

미국 메릴랜드의 Cove Point LNG 수출시설이 첫 LNG를 생산했다고 알려짐. Cove Point LNG 수출시설은 2017년말 가동계획이었으나, 시운전이 지연되면서 3월 초로 가동계획이 미뤄짐. 그러나 지난 수요일 Dominion Energy는 시운전을 통해 첫 LNG를 생산함. 향후 일정대로 수출이 진행될 전망임. (TradeWinds)

"선박왕이 다시 움직인다"… 설레는 조선업계

선박왕 John Fredriksen의 잇따른 중고 드릴십(시추선) 매입을 업황 바닥의 신호라는 해석이 있음. 드릴십은 15년 이후 신규발주가 없었지만, 최근 유가가 반등하면서 중고 드릴십 거래가 발생함.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Fredriksen이 세운 Borr Drilling은 싱가폴 조선사에서 시추선 15기를 일괄 매입함. (조선비즈)

Drewry만 LNG 시장 약세 전망

대부분 전문가가 올해 LNG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Drewry만 유동 부정적 인 전망을 제시함. Drewry는 마인도 선박의 인도로 LNG선의 공급과잉이 유발되고, 운임하락 가능성을 주장함. 또 노후 LNG선의 해체량이 낮고, 작년 16척의 LNG선이 인도가 올해로 지연됐음을 근거로 주장함. (선박뉴스)